

통일선보

무소속대변지

[별호]

주체 101
(2012). 12
17
월요일
음력 11. 5

6. 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은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1. 이 강산 밝히는 해빛처럼
누리에 그 미소 찬란하다
인민위해 바치신 어버이사랑
무궁토록 빛을 뿌린다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2. 정의와 진리의 앞길 밝힌
선군의 그 자욱 불멸하다
조국위해 쌓으신 위대한 업적
후손만대 길이 빛나리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3. 정의와 진리의 앞길 밝힌
선군의 그 자욱 불멸하다
조국위해 쌓으신 위대한 업적
후손만대 길이 빛나리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영원한 일심단결의 화폭

《장군님, 절대로 못가십니다》

지난해 12월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하는 100여리의 거리는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인민의 눈물과 비분의 곡성으로 차고넘쳤다. 정녕 오지 말아야 할 시각이었다. 인민을 보시면 것처럼 기쁘서 해빛처럼 환하게 웃으시던 우리 장군님을 어찌 령구차로 맞이할 수 있단 말인가. 장군님 계시지 않는 조선에 대해 생각조차 못해본 인민이기에 가시면 안된다고 터치는 곡성은 하늘에 닿았다.

— 장군님, 그토록 사랑하신 인민을 두고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 못가십니다, 장군님. 절대로 못가십니다!... 두팔 벌려 령구차를 막아서는 사람들, 령구차를 따라 달리고 달리는 사람들, 피눈물의 바다에 휩싸여 령구차가 멈춰 서기를 그 몇번... TV로 방영된 이날의 영결식장면은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의 한 학자가 《조선사람들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추모하며 흘린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다. 조선에 대하여 다시 인식해야 한다.》고 평한 바와 같이 하늘이 무너진대도 끄떡하지 않는 조선의 혼연일체의 위력에 세계는 경탄했다.

— 장군님, 그토록 사랑하신 인민을 두고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 못가십니다, 장군님. 절대로 못가십니다!... 두팔 벌려 령구차를 막아서는 사람들, 령구차를 따라 달리고 달리는 사람들, 피눈물의 바다에 휩싸여 령구차가 멈춰 서기를 그 몇번... TV로 방영된 이날의 영결식장면은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의 동상과 태양상모자이크 벽화들이 정중히 모셔지고 영생탑들이 건립된 만수대창작사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강계시를 비롯한 온 나라 곳곳마다에서도 끝없이 울려 퍼졌다.

이 땅우에 력력히 빛나는 장재도에 굽이진 걱정의 파도

장재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지금껏 군사적의미로만 불리워오던 작은 섬이 령도자와 인민의 혈연적관계를 보여주는 뜻깊은 섬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된것은 언제부러웠던가.

지난 8월 갈매기 우는 소리만이 치랑하던 장재도에 걱정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사남전선의 최전선에 위치한 장재도를 찾으시었던것이다. 섬에 올라서신 그이를 뵈옵고 병사들은 너무 억이 막혀 눈물을 비오듯 쏟았다. 원수님께서서는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날리시며 와락 달려와 마냥 파고들고 매달리는 병사들과 군인가족들을

진을 찍어주시던 그 광경을 온 나라가 보고 온 세상이 보았다. 세집들이한 창건거리 살림집에 찾아오신 그이 앞에 한집안식구처럼 한치의 간격도 없이 둘러앉아 행복에 울고웃는 모습을 보며 누구나 어쩌면 그이는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에 대한 정이 그리도 극진하실까 하는 생각이 눈곱을 적시었다.

참으로 어버이장군님 지니시었던 열화같은 인민사랑, 태양의 정과 열을 안고 인민에게로 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인민은 일편단심 그이만을 마음 신념의 맹세를 격조높이 터치고 있는것이다.

노래 《인민은 일편단심》에 들어있듯이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사상도 령도도 품도모 어버이장군님 그대로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끝물래야 끝물수 없는 령도자와 인민간의 혼연일체의 화폭은 어제도 오늘도 끊이지 않게 펼쳐지고있다.

본사기자 홍복식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고귀한 업적은 우리 민족과 세계역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이 칭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1돛에 즈음하여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김현환이 쓴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남기신 업적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8일 재미동포전국련합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글은 지난 한해 조국의 인민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잊지 못하며 어떻게 하면 다시 비울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터에 다시 모실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간절한 그리움으로 가슴앓해 왔었다고 밝혔다.

이 나날 우리들모두는 그이께서 얼마나 위대한분이시였으며 얼마나 위대한애국자이시였는가를 더 잘알게 되었다고 글은 지적하였다.

1942년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한평생 이룩하신 불멸의 고귀한 업적은 무엇보다도 뛰어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력사에 길이 빛날 특출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이룩하신것이다.

고귀한 업적은 다음으로 혁명의 령도자로서의 숭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시고 초인간적인 정력과 무한한 헌신으로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어 우리 조국과 민족사에 거대한 공적을 쌓으신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사회주의와 자주성의 결결한 수호자이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반제자주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고 자주화된 새세계를 건설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고 세계의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어 조선의 국제적지위와 권위를 높

만수대언덕에 러져오른 환호성

《만세!》

하늘가를 진감하는 격정과 환호, 터져오른 경축의 축포... 만수대언덕을 뒤덮은 꽃물결속에 제막포가 서서히 벗겨져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이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돛을 맞으며 온 나라 천만군민의 절절한 소망을 담아 만수대언덕에 백두산천출원인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었던것이다. 장군님에 대한 사자들은 눈물속에 말한다는 흠모의 정은 절세위인들

를 유도해보려던 적대세력들은 저들의 꿈이 얼마나 허황한가를 통감했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돛을 맞으며 온 나라 천만군민의 절절한 소망을 담아 만수대언덕에 백두산천출원인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었던것이다. 장군님에 대한 사자들은 눈물속에 말한다는 흠모의 정은 절세위인들

장군님의 유훈 현실로 꽃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사투치는 그리움은 광복지구상업증심에 또 깃들었다. 광복지구상업증심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찾으셨던 마지막현지지도단위이다.

《지금도 귀를 기울이면 어버이장군님께서 우리 상업증심을 돌아보시며 하시던 말씀이 귀전에 울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곳 지체인 김영옥은 잊을수 없는 그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다.

살갓을 얼구는 강추위가 휘몰아치던 2011년 12월 15일의 그날로부터 1년이 흘렀지만 이곳 봉사자들의 가슴마다에는 한시도 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떠나본적 없으며 날이 갈수록 그리움은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1년전 새로 개건된 광복지구상업증심에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시간 상업증심의 꽃꽂이를 맡아 돌아보시었다. 화장품매대에 이르기까지는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한 《봄향기》화장품은 녀성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말씀하시었고 어느 한 매장에 들리시어서는 제품을 유심히 보시면서 동행한 일꾼들에게 이런 좋은 제품을 인민들에게 많이 팔아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20년전 새로 일떠선 광복백화점(당시)을 깊은 밤에 돌아보던 때를 감회깊이 회억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상업증심의 매출의 구성구성을 다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의 중지는 인민사랑이었다.

오늘 인민생활향상에 복무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연 167만 4 610여리에 달하며 그중 령차로정은 39만 8 000여km에 달한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애민현신의 령도자가 또 있으랴.

인민사랑으로 한생을 이어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녀원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현실로 꽃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1년간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관철하시기 위해 인민사랑의 길을 걷고계셨다. 창건거리와 인민극장, 룡라인민유원지, 평양민속공원, 류경린, 인민야외빙상장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관심하시던 건설대상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공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차례 건설현장들을 찾으시며 현지에서 직접 지도해 주신 원수님이시다.

그 과정에 선전리성, 후미학성의 원칙을 구현한 새로운 건설공법에 대한 이야기



방문기 불밝은 창전거리에서

하나 둘 불빛이 어리리 12월의 창전거리에서 저도 모르게 발걸이 가랑 장군님의 옷차림은 땀으로 축축히 젖어있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의 안내로 집을 돌아보았다.

부엌과 식재, 목욕실과 위생실, 이제 태어난 귀염둥이들이 공부하게 될 방이 더 침실들을 돌아보면서 감탄을 연발하는 우리에게 그는 결혼식을 한지 두달만에 이렇게 덩실한 새 집을 받아안고보니 밝고 낮이 어버이장군님께서 만수대언덕에서 찬히 웃으시며 자기들을 굽어보시는것만 같았다 한다.

그러나 뚝배기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찾아오시었다.

《원수님을 모가까지 뵈오니 아버지장군님을 다시 뵈옵는것 같았습니다.》

세대주인 김혁은 지금도 동무들은 북동들이구만 라고 하시며 환히 웃으시던

《원수님께서서는 떠나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 부부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행복하게 잘살라고 창전거리를 지나게 되면 언제든지 들려 래어난 아이를 보시겠다고 하시였습니다. 원수님은 정말 우리 가정의 친어버이십니다.》

그들과 헤어져 거리에 나서니 불밝은 집집의 창가마다에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넘치는 인민들의 모습이 어리여었다. 대원수님들의 동상이 모셔진 만수대언덕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이 창전거리를 메우고있었다.

본사기자 박단희

